

| Bi-Weekly |

신영ESG

“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피해 확대...대응 산업 성장 촉진 ”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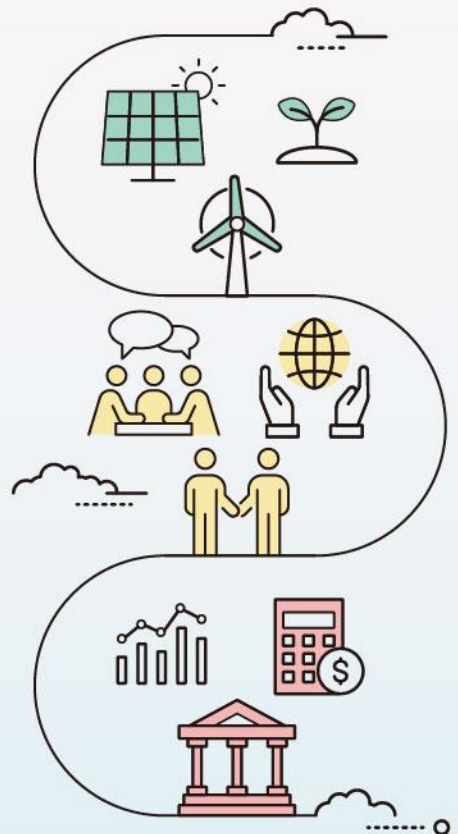
ESG 탐방 노트

현대제철

ESG ETF 따라잡기

Oneascent Emerging Markets ETF (OAEM)

ESG News Clipping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피해 확대...대응 산업 성장 촉진

유럽 지역 폭염에 이어 산불 확대로 피해 가중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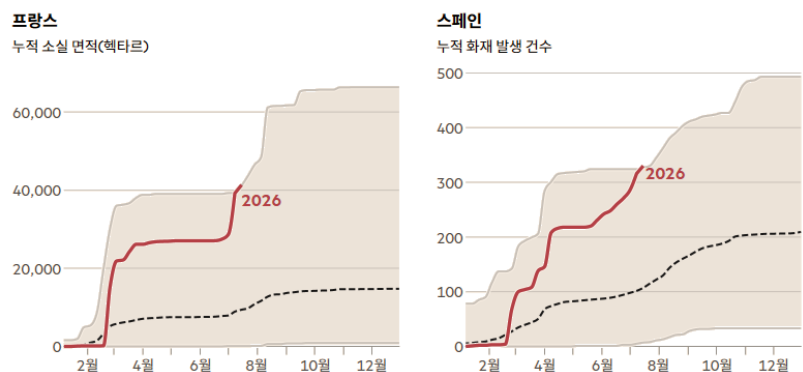
유럽 지역 역대 최고로 더운
6월 기온 기록

유럽 지역은 기후 변화에 의한 폭염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불과 가뭄 등이 확대되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U 관측 기구인 코페르니쿠스에 따르면 서유럽 지역은 6월 들어 평균기온이 20.74°C로 평년보다 3.05°C 높은 역대 가장 뜨거운 6월을 기록함. 유럽 주요국 대부분이 폭염을 기록 중이며 지역별로는 코센(독일), 플루(프랑스), 발바오(스페인) 등 40.0°C가 넘는 극한 폭염을 기록한 곳이 많았음. 이는 북아프리카에서 발달한 강력한 오메가 열돔과 기후변화가 겹쳐 40.0°C를 넘는 극한 폭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EU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공식적인 노력 외에도 국가 차원의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채택해 왔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의 전문가에 따르면 유럽은 전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함.

폭염은 초목 건조를 심화시켜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음 →
2026년 들어 프랑스, 스페인
등은 기록적인 산불 피해 발생

특히 이러한 폭염은 가뭄을 가져오고 초목의 수분을 줄여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음. 2026년 들어 EU에서는 벌써 2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타 산불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 전역에서 연이은 폭염과 가뭄으로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음.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EFFIS)의 데이터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2026년 들어 현재까지 33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는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임. 이로 인해 13명이 사망하고 6만 5천 헥타르가 넘는 면적이 소실되었는데, 이는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임. 또한 프랑스의 산불 피해 면적은 기존 연평균 9,400헥타르에 비해 약 4배 큰 41,000헥타르 이상이 불에 타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도표 1. 프랑스, 스페인 역대 최고치에 다다른 산불로 우려 확대 중



자료: EFFIS, FT,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기후 변화로 인해 미국과 유럽
모두 산불 시즌의 시작이 빨라
지고 기간이 길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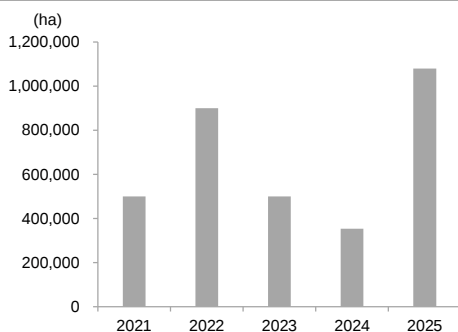
우리에게 ‘산불조심기간’으로 알려진 기간이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는 ‘산불 시즌’임. 산불 시즌(Wildfire Season)은 대기가 건조하고 온도가 높으며, 강풍이 불어 산불 위험과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지는 연중 특정 기간을 의미함.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미국과 유럽 모두 산불 시즌의 시작이 빨라지고 기간이 길어져, 사실상 연중 무휴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과학자들은 폭염, 강풍, 그리고 초목의 건조함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함.

미국은 국토가 넓고 기후대가 다양하여 지역별로 산불 시즌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로 서부 및 서해안에서 파괴적인 산불이 발생하고 있음. 이 지역의 산불 시즌은 주로 5월부터 11월까지로 특히 여름철 건조한 더위와 더불어 가을철 강한 바람(캘리포니아의 산타아나/디아블로 바람 등)이 결합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에는 위험이 심화되어 연중 내내 산불을 경계하는 추세임.

EU지역, EU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에서 산불 피해 발생해
사상 최대인 107만 헥타르가
불타는 사상 최악의 해를 보냈
음 → 특히 8월 폭염으로 대형
산불 발생 증가 → 올해 여름
도 대형 산불 증가 우려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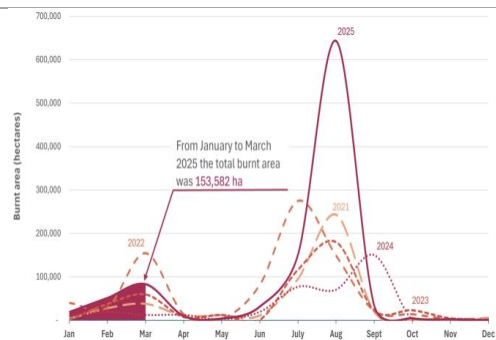
유럽 지역의 경우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크고, 북유럽 및 중부 유럽에서도 국지적인 산불이 발생하고 있음. 남유럽 및 지중해 연안 지역의 산불 시즌은 6월부터 9월까지이며, 특히 7월과 8월에 극에 달함. 이는 극심한 여름 폭염, 심각한 가뭄, 그리고 강한 바람(그리스의 멜테미 바람 등)이 주된 요인으로 알려짐. EU지역은 지난 해 총 7,783건의 산불이 EU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에서 발생해 100만 헥타르 이상이 불타는 사상 최악의 해를 보냈음. 특히 지난 해 8월초 폭염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22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46만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이 불탔는데, 이는 EU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43%에 달했음. 이에 올해 여름도 대형 산불 발생 우려 확대되고 있음.

도표 2. 2021~2025 EU 지역 연간 산불 피해 면적



자료: EFFIS,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2021~2025 EU 지역 월별 산불 피해 면적



자료: EU의회(E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처럼 산불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북미와 유럽의 산불 시즌 장기화 및 대

형화는 전 세계적인 기후 테크(Climate Tech)와 재난 복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요구도 강해지며 저탄소 친환경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원격 감지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산업 관심 확대 중

먼저 원격 감지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산업들이 있는데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투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분야임. 산불을 초기 단계에서 감지하여 초 대형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는 기술 기업들로 위성 데이터 분석, 첨단 센서 및 감시 시스템 등이 떠오르고 있음. 최근에는 인공위성 이미지를 AI를 활용해 미세한 연기나 열원을 감지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음. 또한 산림 내에 설치되어 습도, 기온, 가스를 실시간 측정하는 첨단 센서 네트워크 및 드론 감시 시스템 개발사들도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진화 단계에 사용되는 소방 장
비 및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 대
한 관심 확대 중

또한 진화 단계에 사용되는 소방 장비 및 인프라 관련 기업들로 산불을 직접 진화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 및 화학 물질 제조사 등에 대한 관심도 높음. 항공 진화(Air Firefighting) 및 특수 차량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소방용 헬기와 고정익 항공기를 공급하는 대형 항공기 제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음. 또한 소방 펌프, 특수 방화복, 화재 진압 장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글로벌 안전장비 기업들도 있음. 또한 헬기에서 살포하는 친환경 방화제 및 소화 약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도 우상향 중임.

예방 및 회복과 관련해 전력망
현대화 및 인프라 보호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 확대 중

한편 산불 예방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도 진행되고 있음. 미국 서부와 남유럽 산불의 상당수는 노후된 고압 전선이 강풍에 끊어지며 발생함에 따라 전력 인프라의 대대적인 보수 투자가 진행 중임. 스마트 차단기 관련 기업과 전력 케이블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유틸리티 설비 기업 나아가 송전선 지중화 등이 진행되며 건설 сек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기후 테크 및 소방 산업은 민간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의 예산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 →
국가별 재정 상황이나 민간 산
업으로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
해야

산불은 산림 자원을 파괴하여 원자재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됨. 이는 상품(Commodity) 시장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캐나다와 미국 북서부의 대형 산불은 전 세계 목재 공급을 줄여 목재 가격 상승을 초래함. 이에 목재 관련 ETF 등에 투자를 검토해 볼 수 있음. 또한 산불로 인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에 따라, 각국 정부의 탄소 감축 압박이 강해져 탄소배출권 가격이나 재생에너지 인프라 자산의 장기적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음. 다만 기후 테크 및 소방 산업은 민간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의 예산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임. 이에 국가별 재정 상황이나 민간 산업으로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 산불 등 복합적 재난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국가의 노력이 이어지며 관련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추천함.

ESG 이벤트 & 신영's View

기름값 오르자 중고 친환경차 '인기몰이'... 가격도 '경풍'

-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지속으로 차량 유지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국, 미국, 호주 등 주요국에서 신차 대비 가격 부담이 적은 중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급증
- 친환경 중고차의 수요 증가가 가격 강세로 이어져 한국(친환경차 평균 거래가 2,519만 원)과 미국(중고 EV 도매가 전년 대비 12% 상승) 모두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함

Comments

- IRA 폐지 여파로 미국 전기차 시장은 수요 감소가 지속 중이나, 유럽, 아세안 등 그 외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 중
- 과거 오일쇼크는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 일본 업체들에게 기회였으나, 이번에는 EV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중국 업체들의 유럽, 남미, 아세안 지배력이 빠르게 확대
- 중국 업체들의 멕시코 시장 점유율은 17%까지 증가했으며, 유럽 시장 점유율은 11%까지, 호주 시장에서는 상위 10개 점유율 업체 중 4개가 중국 브랜드

- Analyst 문용권

LG유플러스 탄소배출 증가세...구매품·자본재가 스코프 3 확대 견인

- LG유플러스의 2025년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은 58만7,195톤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 통신장비·서버·데이터센터 설비 등 공급망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늘어난 결과
- 특히 AIDC와 네트워크 투자가 확대될수록 자본재 관련 배출량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성장투자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사이 부담

Comments

- 따라서 재생에너지 조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장비 공급사에 대한 탄소배출 기준 적용, 저탄소 서버·네트워크 장비 구매, 제품별 탄소발자국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스코프 3 공시와 감축 규제가 강화될 경우 친환경 설비 도입비용과 공급망 관리비용이 AIDC 사업의 투자비 및 수익성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 가능

- Analyst 정원석

EU 택소노미 개편 본격화...기업·금융사 공시 대폭 간소화

- 유럽 금융감독기구들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규정 간소화 제안 ← 옴니버스 패키지
- 실효성 없는 '운영지출(OpEx) KPI',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전면 재편
- 금융 부문 중복 규제 폐지...은행·보험 지표 대폭 축소 및 현실화
- 금융·제조 겸업 기업 '가중평균 공시' 폐지... 지주회사(모기업)의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단일 공시 체계를 적용 + 매출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핵심 자회사의 지표만 간소화된 양식으로 제출

Comments

- EU 택소노미는 복잡한 지표 체계와 방대한 데이터 요구로 인해 실효성 논란 지속 → 공시부담 완화, 행정 편의 제고, 실효성 강화 등을 이유로 개선안이 제시됨
- 의무 공시 항목을 '연구개발(R&D)지출'로 제한, 기타 운영 비용은 'OpEx+'로 자율 공시, 매출 자본 비중 10% 미만 녹색활동은 운영지출 공시 면제해 부담 완화
- EBA, 자본시장 자문 및 중개 수수료 수익 중 택소노미 부합 비율을 측정하던 '수수료 KPI'와 트레이딩 자산 관련 '트레이딩북 KPI'를 폐지 또는 축소 제안
- 이외에도 옴니버스 패키지에 따라 EU의 ESG 공시도 완화(ESRS완화, VSME마련 등)

- Analyst 오광영

현대제철(004020.KS)

매수(TP 48,000원)

탄소중립을 향한 단계적 여정

현재주가(7/24) 27,750원

ESG 등급 현황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6. 7. 24)
(평가기관) ESG E S G KCGS B+ B+ A+ B Bloomberg 58.6 47.5 24.3 100.0 주: KCGS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시가총액(억원) 37,031 배당수익률(26F, %) 1.4 외국인지분율(%) 17.0 주요주주 지분율(%) 기아 외 6인 36.0 % 국민연금공단 8.8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5 -34.7 -20.6-24.5 KOSPI대비 상대수익률 20.9 -36.8 -40.8-64.0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구 분 단위 2024 2025 온실가스 배출량 천 tCO2eq 29,224 28,406 폐기물 발생량 천 ton 9,926 10,253 에너지 사용량 TJ 159,662 153,016 환경경영 인증 25년 ISO14001 국내 전 사업장 인증 환경경영 조직 ESG 위원회	구 분 단위 2024 2025 LTIFR 명/20만 시간 2.39 2.41 기간제 근로자 비율 % 3.7 5.3 여성 근로자 비율 % 4.2 4.9 사회 공헌 투자액 억원 16,698 13,212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2 주전 통지 전자투표제 실시 집중투표제 실시 배당 실시 배당기준일 연 1 회 결산 배당 이사회 결의 이사회 운영 실적 9 회, 참석률 99%

ESG 관련 최신 활동

[2026 ESG Awards] 현대제철, 철강 부문 대상...ESG 거버넌스 속도 (한스경제, 26.06.23)	현대제철, 2년 연속 '지속가능성 챔피언' 선정...글로벌 ESG 리더십 입증 (한경 비즈니스, 26.04.28)	현대제철, CDP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A-' 등급 획득 (연합뉴스, 26.01.26)
- 현대제철이 '2026 ESG Korea Forum & Awards'에서 국내 시가총액 250대 기업 중 철강 부문 대상을 수상 - ESG 평가에서 종합 83.05점·A등급을 기록했으며, 특히 지배구조 부문은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획득 - ESG 협의체와 이사회 투명경영위원회 운영,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감사기구 전문성 강화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현대제철이 세계철강협회가 선정하는 '2026 지속가능성 챔피언'에 이름을 올리며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 - 지속가능성 현장 준수, 환경영향평가 자료 제공, 스틸리 어워즈 최종 후보 선정 등 세계철강협회의 주요 평가요건을 충족 1.8GPa급 초고강도 핫스탬핑 소재와 철강 부산물을 활용한 산업 간 자원순환 기술 등의 성과를 인정받음	- 현대제철이 '2025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국내 철강사 중 유일하게 리더십 A-등급을 획득 -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분석 결과에 기반한 대응전략 추진을 인정받아 전년 대비 등급이 한 단계 상승 - 물리적 기후 리스크의 재무영향 분석, 기업 전략 연계 및 공급망 ESG 정책·실사체계 고도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ESG history

연혁	내용
2007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시작
2012	[E]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참여 시작
2023	[ESG]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및 2030년 탄소배출 12% 감축 목표 수립
2024	[E]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 제품 5종 승인 및 미국 조지아법인 VPPA 체결
2025	[G] 선임사외이사제도 도입 및 반부패·뇌물 정책 제정
2026	[ESG] 세계철강협회 '2026 지속가능성 챔피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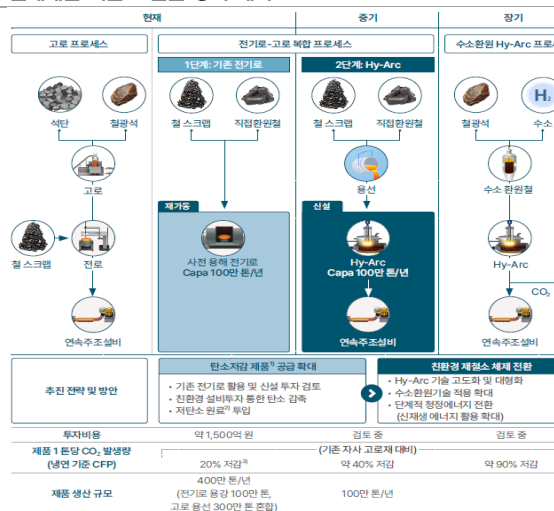
2050 탄소 중립 로드맵

현대제철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국내외 기후·통상 규제를 고려해 설비 투자 및 생산 공정 전환 등을 추진 중. 단기적으로는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 등 공정 탄소저감을 통해 전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2% 감축할 계획. 장기적으로는 고유기술 기반 탄소저감 생산체계인 하이큐브(Hy-Cube) 기술 고도화를 통해 하이아크(Hy-Arc) 대형화 및 수소환원기술 적용 확대 등 체제 전환을 준비 중이며, 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을 목표로 함

단기에는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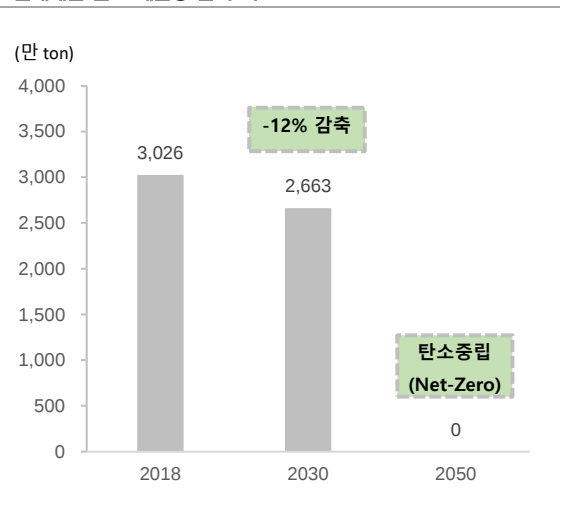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의 경우 현재 1단계 가동을 추진 중. 2023년부터 당진제철소의 기존 전기로를 활용하여 탄소저감 제품 생산성을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고객사 테스트를 진행함. 2026년 2월에는 기존 고로 제품 대비 탄소배출량을 약 20% 감축한 탄소저감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연내 탄소저감 제품 28종을 추가 인증하며 총 53종까지 인증 범위 확대를 목표로 함. 향후에는 2단계 하이아크(Hy-Arc) 신설 투자를 통해 기존 고로 제품 대비 탄소 저감 제품 생산체계를 구축할 예정. 장기 과제로 추진 중인 하이큐브는 공정별 탄소배출 저감에 더해 전체 가치사슬까지 고려한 완성형 생산체제로 Hy-Arc를 통해 기존 전기로에서 생산이 불가능했던 고품질 탄소저감 제품을 생산 예정

현대제철 저탄소 전환 장기 계획



자료: 현대제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현대제철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자료: 현대제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Oneascent Emerging Markets ETF

(OAEM)

Key Facts		Top Holdings (기준일: 2026.07.22)		NAV와 운용자산	
상장일	2022/09/14	TSMC Ltd.	13.57%	(USD) (운용자산(우)) (NAV(좌))	(\$mn)
BM지수		Samsung Electronics	9.53%		
구성종목수	48	SK Hynix,	5.56%	60.00	150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124.29	BBH SWEEP VEHICLE	4.72%		
시장가격(USD)	46.90	Grupo Mexico S.A.B. de C.V.	3.80%	40.00	100
NAV(USD)	47.54	SinoPac Financial Holdings	3.32%		
총보수(%)	1.22	State Bank of India	3.04%	20.00	50
운용사	OneAscent	Accton Technology	2.99%		
		Cathay Real Estate Development	2.70%	-	-
		Promotora y Operadora de Infraestructura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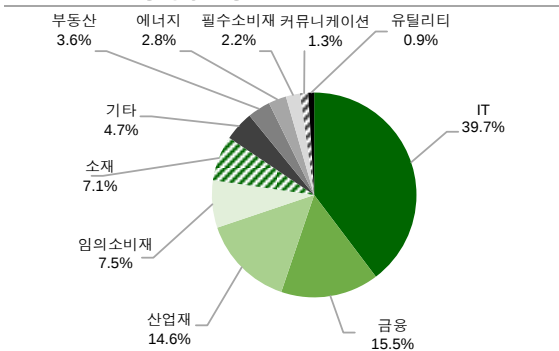
ETF 개요

OneAscent Emerging Markets ETF(OAEM)는 2022년 9월 상장된 ETF로, ESG 선별 방법론과 자체 개발한 투자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최소 3개국 이상의 신흥국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Active ETF임. OAEM은 먼저 OneAscent Elevate Screening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발굴함. 이 방법론에 따르면 가치 기반 선별 과정을 통해 논란이 되는 활동에 연루된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ESG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선별함. 이후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정량적 분석과 상향식 기본적 분석을 결합하여 발굴·투자함. 이는 운용사가 기업이 자연스러운 'Life Cycle'를 거친다고 믿으며, 기업이 그 주기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인 투자 과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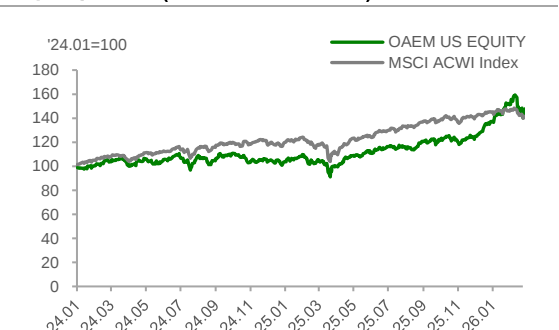
OAEM은 OneAscent Elevate Screening 프로세스와 라이프사이클 투자 접근법을 결합한 독창적인 운용 전략으로 운용되는 Active ETF로 향후 우수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 기업들로 집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되는 ETF임. 신흥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 중 ESG 특성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 투자 대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추천.

OAEM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2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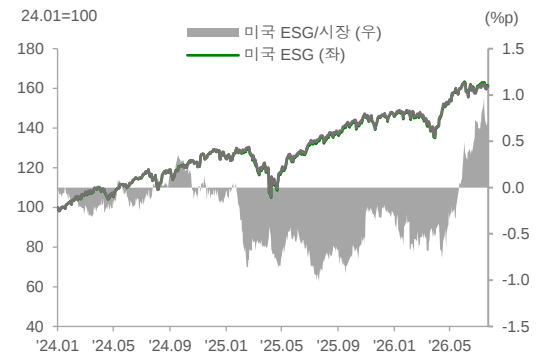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2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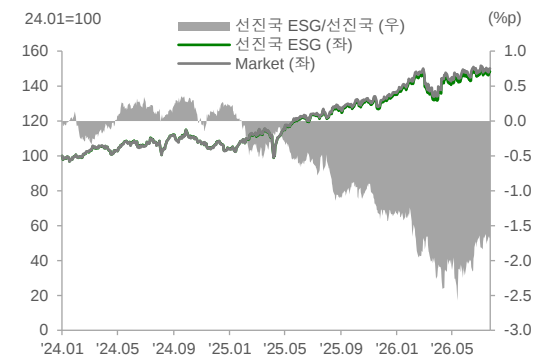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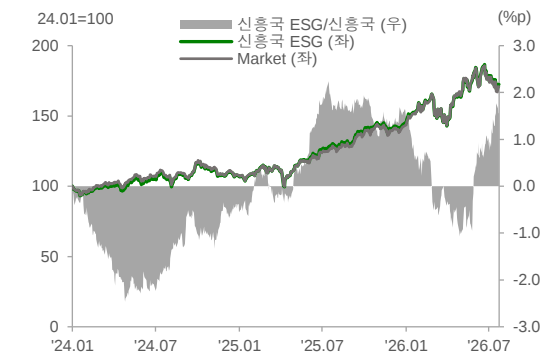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24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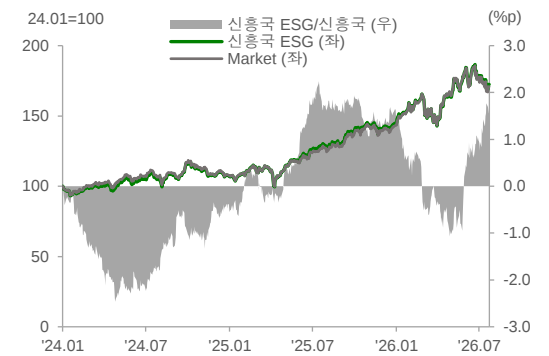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24 기준)

신중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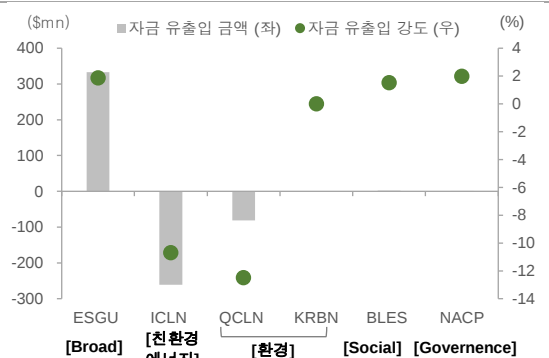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24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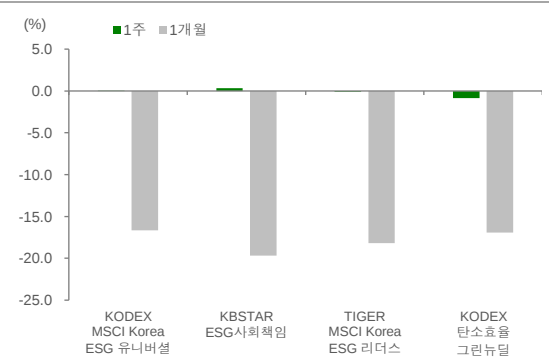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24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24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24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95,120	60	75.6%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7,554	13	13.9%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749	13	5.4%	13.4%
4 Social	5,915	5	4.7%	5.2%
5 Governance	453	3	0.4%	3.1%
6 기타	50	3	0.0%	3.1%
ESG 전체	125,841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24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7,924	-0.5	2.0	6.4	9.1	333	801	1.9	4.5
	ESGV	13,169	-0.7	2.0	6.6	8.6	62	182	0.5	1.4
	SUSL	1,130	-0.9	1.6	6.1	6.4	-20	13	-1.7	1.2
	NULV	2,153	-1.2	2.0	5.0	9.1	20	-16	0.9	-0.8
	NUSC	1,291	-0.2	1.0	5.1	7.6	18	-145	1.4	-11.2
	ESGE	6,664	1.2	-2.6	4.3	10.3	70	54	1.0	0.8
	ESGD	11,801	0.4	2.0	3.4	4.0	0	-9	0.0	-0.1
	EAGG	4,971	-0.6	-1.1	-1.9	-2.5	151	689	3.0	13.9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2,445	0.9	-10.2	-7.9	1.7	-261	374	-10.7	15.3
	TAN	1,545	-0.8	-8.0	-7.8	-1.9	-44	489	-2.8	31.7
Environment	QCLN	647	1.3	-13.7	-7.4	4.5	-81	27	-12.5	4.2
	SPYX	2,747	-0.7	2.0	5.7	8.2	-2	24	-0.1	0.9
	CRBN	1,145	-0.2	1.2	4.4	6.7	13	61	1.1	5.3
	KRBN	146	5.6	4.8	13.2	-0.3	0	-32	0.0	-21.8
Social	BLES	159	-0.3	1.5	1.9	5.9	2	12	1.5	7.3
Governance	SHE	323	0.4	0.4	10.0	12.9	0	-7	0.0	-2.1
	NACP	75	0.1	0.0	10.6	14.7	1	1	2.0	2.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24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 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199	0.0	-16.6	14.2	55.2	0.0	-29.8	0.0	-14.9
FOCUS ESG 리더스	73	-0.8	-10.0	-6.5	16.9	0.0	-53.2	0.0	-73.0
KODEX 200ESG	1,775	0.2	-17.7	18.0	61.8	-42.7	628.6	-2.4	35.4
KBRIS ESG 사회책임	6,721	0.3	-19.7	18.7	66.1	2,301.6	4,127.1	34.2	61.4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239	0.0	-17.1	17.4	61.6	12.2	12.2	5.1	5.1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71	-0.1	-18.2	16.4	53.9	0.0	-50.7	0.0	-29.6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438	-0.9	-16.9	5.8	40.5	0.0	-169.9	0.0	-38.8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217	-0.9	-16.8	6.0	40.5	0.0	-18.5	0.0	-8.5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216	-0.8	-17.0	6.5	41.3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24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SG

[\(26.07.16\) 딜로이트, ESG 투자 '재무적 가치' 입증 새로운 프레임워크 출시-Impact-on](#)

비용·매출·리스크를 현금흐름으로 바꾼다
감축비용 계산에서 'ESG 투자 포트폴리오'로

E (환경)

[\(26.07.13\) 롯데케미칼, 친환경 투자 재무제표에 담았다...고탄소 산업 기후대응역량 입증-Impact-on](#)

핵심포인트 ① 물리적 위험 노출액 정량화... 고탄소 산업의 재무적 리스크 투명하게 공시
핵심포인트 ② 재무제표로 들어온 기후 투자... 계정 과목 단위로 상세내역 공개
핵심포인트 ③ KPI 10% 연계 거버넌스 확보... 내부탄소가격 '단가' 공개는 속제
총평: 기후 공시는 화학업계의 생존 가르는 '척도'... 전환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의 과제

[\(26.07.15\) 브라질, 에탄올 컨테이너선 첫 출항...해운 탈탄소 시장 노린다-Impact-on](#)

5년 새 14배 뛴 친환경선 시장...에탄올, 새로운 대안 부상
관건은 국제 탄소 기준...EU 규제도 변수

[\(26.07.15\) 친환경 연료 벽에 부딪힌 해운업계...LNG·바이오연료·원자력으로 눈 돌린다-Impact-on](#)

수소·암모니아 선박 연료 선호도 급감... 기존 선박 연료로 회귀 움직임
선주들 친환경 연료에 대한 추가 비용 지불의사 없어... 규제 불확실성에 투자도 보류

S (사회)

[\(26.07.14\) 세제·화장품 원료도 EUDR 영향권...BASF, 팜유 인증 조달 차질-Impact-on](#)

추적률 97.7%인데 인증 조달은 79.2%로 급락
파생물 인증률 8.4%...목표는 2030년으로 연기
소농 인증 늘려야 공급 부족 풀린다

[\(26.07.14\) LG·삼성 스마트TV 앱 34%서 화선 공유 코드...홈네트워크 보안 우려-Impact-on](#)

스마트TV 앱 6000개 분석...34%에서 화선 공유 코드 발견
외부 화선 중개 넘어 홈네트워크 공격 우려
아마존·로쿠는 금지...LG전자·삼성전자는 공개 금지정책 확인 안 돼

[\(26.07.21\) HD현대·한화오션, 조선소 고위험 공정에 휴머노이드 투입...직무전환은 과제-Impact-on](#)

사망사고 잇따르자...HD현대·한화오션, 고위험 공정에 휴머노이드 투입
로봇도입 통한 새로운 리스크 발생 가능...충돌·협착 막을 안전체계 필요
해외는 로봇 도입과 기존 인력 재교육 병행...국내는 직무전환 계획 공백

[\(26.07.22\) 쿠팡, 인천 물류센터 판매자 피해 전액 보상...“실질적 지원 총력”-ESG경제](#)

로켓배송 입점 판매자 재고 손실까지 포함...경영불안 해소
불길 번지지 않은 공간의 재고도 포함..1대1 상담 창구 운영

G (지배구조)

[\(26.07.13\) 호반 김상열, 조원태 지분 0.4%p 톡밀 추격...이번엔 대한항공 노리나-ESG경제](#)

아시아나 인수 추진 호반그룹, 한진칼 지분 4년째 매집 20.15% 확보
계열사 통해 강내매수 지속...‘단순투자’ 해명에 시장은 ‘의문의 사선’
당장 경영권 도전 가능성 낮지만...추가 지분매입·주주총회 행보 주목

[\(26.07.20\) 삼성바이오, 폴리펩타이드 인수...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 본격 공략-ESG경제](#)

인수가 2조7000억원...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역대 최대 M&A
GLP-1·펩타이드 시장 진출...글로벌 CDMO 경쟁력 확대
항체약품부터 차세대 바이오의약품까지...종합 생산플랫폼 구축

정책 ESG 뉴스

ESG

[\(26.07.20\) 한국 A법엔 탄소·노동 규제 없다...EU는 환경정보·인사 AI까지 관리-Impact-on](#)

AI 환경 대책 없는 한국법...EU는 환경 정보 공시 의무화
사회적 약자 보호...한국은 '이용 기회 확대', EU는 '차별 위험 통제'
노동 분야...한국은 '채용 중심', EU는 '인사 전 과정' 관리

E (환경)

[\(26.07.14\) EU, EUDR 품목 재편 위임규정 채택...가죽 제외·인스턴트커피 추가-Impact-on](#)

가죽·고무제품 빠지고 인스턴트커피·팜유 제품 추가
환경 편익 인정했지만 제외...2030년 재편입 검토
소규모 생산자 신고 간소화...시스템 장애 대응도 마련

[\(26.07.14\) AI 데이터센터에 '청정전력 90%'...美 주정부, 전력 조달규칙 다시 쓴다-Impact-on](#)

뉴욕, 5MW 이상 데이터센터에 2040년 재생에너지 90%
오리건·미네소타, 일반 가구에 비용 전가 못 하게 막았다
전력회사에서 사는 대신 발전소를 '직접 데려오는' 모델

[\(26.07.21\) EU, '40년 전기화 비중 46% 추진...전기요금 개편·히트펌프 2배 보급-ESG경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 비중 현행 23%→2040년 46% 검토
전기요금의 4분의 1 차지하는 망 이용료 개편...전기 세금은 가스보다 낮게
산업·건물·수송 전기화 지원하고 전력망·저장장치·전문인력 확충

[\(26.07.22\) EU, 전기화 행동계획 발표...산업전환에 170조원·2040년 전력 비중 46%-Impact-on](#)

전력 70%가 청정에너지인데...전기화율은 10년째 23%
산업 에너지 수요 60% 전기화 가능...170조원 기금 투입
히트펌프 400만대 보급...저장장치 200GW로 확대

S (사회)

[\(26.07.13\) EU, 메타 '중독 설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예비 판정...인스타·페이스북 정조준-Impact-on](#)

EU집행위, 메타의 SNS 주요 기능 중독 유발한다고 판단... 자율 규제 조치 실효성 없어
메타, EU 예비조사결과에 반발... 최종 확정 시 연 매출 6% 과징금

[\(26.07.13\) 고용정책 성과평가, 취업·임금에 편중...사회적 변화는 시각지대-ESG경제](#)

OECD·EU 37개국서 사회목표형 고용정책 200여개 운영
취업효과 평가는 절반 넘지만 사회성과 평가는 10% 안팎

[\(26.07.15\)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올라-ESG경제](#)

함의 불발돼 노사안 투표 부쳐...사용자 안으로 결정
2025년 1.7%, 올해 2.9%서 3년 만에 다시 3%대로

[\(26.07.16\) EU A법 일정 늦춰도 공급업체 실사는 그대로...비EU 기업, AI 증빙 부담 커진다-Impact-on](#)

고위험 AI 일정 늦춰도 조달 심사는 계속
비EU 공급업체, AI 자산부터 증빙해야
구매·법무·보안 공동대응 필요

G (지배구조)

[\(26.07.15\) 중국, 매년 폐배터리 400만 쏠아지는데... 보조금 뿌려도 재활용 시장 걸도는 이유-Impact-on](#)

돈 안 되는 LFP 배터리 천국... 대기업마저 수익성 악화에 허덕여
블랙마켓이 장악한 수거 시장... 보조금 제도의 역설
해법은 EU식 재활용 원료 의무 사용과 디지털 여권 도입

일반 ESG 뉴스

ESG

[\(26.07.14\) AI가 연차보고서 쓰고 규제도 점검...영국 FRC '실험' 넘어 실무 안착 단계-Impact-on](#)

연례 보고서 작성부터 규제 모니터링까지... 활용 영역 급격히 확대
'AI 환각'과 데이터 보안 우려... 거버넌스 구축이 최우선 과제
사외 감사인에게 AI 접근권 부여 등 통제 프레임워크 진화

[\(26.07.22\) EFRAG, CSRD 보고서 905건 분석...기후전환계획 공시 69%, 실행력은 여전히 과제-Impact-on](#)

기후전환계획 공시 55%서 69%로...1.5도 목표는 57%
중요 ESG 주제 절반만 목표 설정...임원 보상 연계도 63%

E (환경)

[\(26.07.13\) 일본 통합보고서 1200개 돌파...투자자 신뢰받은 성공요인은-Impact-on](#)

일본 상장사 1200곳 이상이 통합보고서 발간
의무공시는 규제용, 통합보고서는 설득용
日 GPIF, '우수 지속가능성 공시 89개사 선정...아지노모토·이토추·히타치 최다 추천'
"중요성 나열에 그치지 말고 재무 임팩트로 연결하라"

[\(26.07.14\)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4년... '평가'보다 '이행 관리'가 과제-Impact-on](#)

평가서만 존재하고 제재는 없다... 협의 이행의 '사각지대'
'규모' 중심 평가와 임의적인 의견 수렴도 한계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과 의견 수렴 절차도 개선 과제

[\(26.07.15\) AI로 유럽 600대기업 10년치 보고서 분석해보니-Impact-on](#)

공시 지표 117개에서 180개로...오염·생물다양성은 여전히 공백
스코프1·2는 감소...스코프3는 5.6배 증가
여성 임원 늘었지만 직원 이탈·소득 격차 악화
오픈소스로 공개된 데이터... "그린워싱 감시 체계 작동할 것"

[\(26.07.15\) 유럽투자은행, 오스트리아 최대 그린수소 사업에 4억5000만유로 대출-Impact-on](#)

오스트리아 최대·유럽 5대 규모... 사업비 75% 단숨에 확보
배관 22km 깔아 정유공장에 그린수소 공급... 탄소배출량 10% 줄인다

[\(26.07.16\) 미국 '기후소비자'의 부상...160조달러 자산의 힘-Impact-on](#)

전기차는 줄었지만 '전동화 차량' 비중은 사상 최고
히트펌프·태양광·유기농...구매로 드러난 기후 수요
160조달러 가계자산, 구매보다 큰 기후시장 변수
기업의 기후전략, 규제에서 고객 분석으로

[\(26.07.20\) 인도 첫 수소열차 상업운행...89km 달린다-Impact-on](#)

화력 발전 대국 인도의 과감한 녹색 전환
높은 비용과 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

S (사회)

[\(26.07.21\) 미 CSO 15년만에 첫 감소...핵심 흐름은? -Impact-on](#)

"신규 선임이 급감"...공석 방치·직책 폐지 늘어
CEO 직속 보고 33%→14%로 급감...법무부서 이관 늘어
"시장 불확실성·지정학적 변동성이 최대 도전"
"지속가능경영, 이제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묻는 단계"

G (지배구조)

[\(26.07.13\) 배터리 스타트업, EV 대신 AI 데이터센터로...새 수요 잡는다-Impact-on](#)

1000분의 1초, 소도시 전력 증발... '그리드 한계' 뚫는 나트륨 배터리
나트륨이온·고체전지, AI 데이터센터로 눈 돌린다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pm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 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 의견 비율			
기준일 (20260630)	매수 : 90.45%	중립 : 9.55%	매도 : 0%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현대제철	-	-	-	-	-	-	-	-

